

무더위 잇은 재계 총수들… 글로벌 현장서 해법 찾는다

트럼프 관세·전쟁 리스크 확대
그룹 총수·경영진 비상경영 돌입

이재용, 앨런&코 콘퍼런스 참석
최태원·정의선, 해외서 생존 구상
포스코·LG도 사업 재경비 나서

한여름 무더위를 잇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하반기 경영구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 리스크 확대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그룹 총수와 경영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비상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아이다호주 섀벨리 휴양지에서 열리는 '앨런&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비공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초청받은 인사만 참가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은 9년 만에 참석하는 것이다. 주로 미디어·정보기술(IT) 거물들이 모여 '억만장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름 캠프'로도 불린다.

주요 외산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GM) 회장 겸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밥 아이거 월트 디즈니 컴퍼니 CEO,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다라 코스로사히 우버 CEO 등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 회장이 유일하게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이 이번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곳에서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협력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4년 섀벨리에서 애플의 쿡 CEO와 회동

했는데,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화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메드텍(소니오), 오디오·전장(룬,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공조(플렉트) 등의 기업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주 17일 진행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글로벌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글로벌 CEO 사교 모임인 '구글 캠프' 참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과 함께 이 회장도 함께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캠프는 2013년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회의에서 착안해 발족한 모임이다. 매년 7월 말~8월 초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서부 휴양지인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달 말 개최되는 글로벌 권역장 회의를 앞두고 미국 관세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정 회장의 미래 전략에 따라 우리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자동차산업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미래 전략, 글로벌 기술 동맹, 통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비주력·적자 사업 매각을 위한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파우아뉴기니 중유 발전법인과 파인오케미칼, 베트남 석유 발전소 지분 등을 매각해 현금 9491억 원을 마련했다. 이번 장자강포항불수강 법인을 포함해 추가 자산 매각을 통해 연말까지 총 2조1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발 관세폭탄, 전기차 캐즘 등…포스코그룹을 둘러싼 위기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도 수시로 경영 상황을 공유하며 하반기 경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협상이 시작됐지만 관세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그룹 총수들은 여름 휴가 기간에도 경영 활동을 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통령실은 13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후속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현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뉴스

법제처장 조원철, 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등 임명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교육 최은옥·국토2 차관 강희업
관세청장 이명구·행복청장 강주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

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

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실장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왔다.

과기부 제1차관에 인선된 구혁채 전 실장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인규 교수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

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제2차관에 인선된 강희업 위원은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이며,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강윤진 협력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차관에 오른 노용석 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

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법제처장에 인선된 조원철 변호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 받았다.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차장은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다. 병무청장에 오른 홍소영 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책임자로 기대받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닭·계란값 줄인상… 저소득층 부담 커져

>> 1면 '냉방비에 농축산물값…'서 계속

계란(일반란 30구) 가격도 같은 기간 7026원에서 7087원으로 올랐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료도 늘 전망이다. 전기료 가격지수는 142.78로 1년 전과 비교해 0.4% 하락했다. 정부가 자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기료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하루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평상시(에어컨 사용 전) 28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평균 수준(5.4시간/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8만3000원~11만4000원이다.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늘어나면 요금 부담은 2만3000원~3만1000원 증가한다.

◆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가중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 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2012~2019년)의 3.4%보다 낮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동발 에너지가격도 상시 위협 요인

>> 1면 '새 정부 효과…'서 계속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올라서는 등 먹거리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7월 물가 상승률이 더위로 갈 경우 금리 인하론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무력충

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은 국내 경제에 상시 위협 요인이다.

미국발 관세는 수출 및 국내총생산(GDP)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달 31일 자정(미동부시간 기준)까지 부과 유예 기한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불확실성도 함께 연장됐다. 양자 간 협상결과는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